

지역 **메아리**

김제농기센터, 도시민 귀농학교 운영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에서는 도시민들이 김제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민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도시민 귀농학교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2박 3일)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도시민 귀농학교는 김제시의 농업 뿐 만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하게 알 수 있도록 견학과 체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3일 첫째 날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조정희) 20여명 회원들이 참석한 귀농콘서트는 귀농 에피소드, 다양한 귀농 노하우 등을 들려주고 교육생들과 어울어져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교육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24일 둘째 날은 딸기체험 농장인 딸기코 밭길에서 농작 견학과 딸기 따기 체험을 시작으로, 백구면 죽염농장, 만경읍 천사다육 등의 선진농장에서 창업 노하우, 마케팅 및 유통기술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사 마지막 날은 김제의 역사, 문화 탐방과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새만금 견학과 망해사와 연인차 다원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도시민 귀농학교가 마무리 되었다.

김태환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제2차 도시민 귀농학교가 6월에 개최되는데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 김제시에 많은 도시민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아토피 자조모임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역사회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부모를 대상으로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편백나무방)에서 자조모임을 실시한다.

이번 자조모임은 아토피 질환으로 진단 받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의 올바른 이해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잦은 재발과 증상악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증상완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돕기 위하여 실시한다.

아토피 질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자조모임은 2017년부터 실시하여 2년째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전년도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여 올해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분기별 총 4회기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자조모임 이외에도 취약계층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 시민교육 및 일일캠프 진행, 4개소 안심기관 운영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동네 맞춤 해결사’ 출격

김제시 교월동 복지공동체, 독거노인 등 주거불편 사항 발굴 실시

김제시 교월동 복지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맞춤 해결사’ 사업을 위해 대원들이 독거노인세대 등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3월 복지대상자 든든 care를 위해 복지공동체가 현장에서 분야별 재능을 살려 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복지대원 6명 모두 발 벗고 나섰다.

이번에는 향교마을에 사시는 기초수급 어르신세대를 방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살폈다. 할머니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의 사글세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세대로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부엌에는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여 힘든 생활을 하던 차이다.

이에 최창진 복지공동체 대장은 “지금까지 이뤄진 사업들은 주로 대·소공사들로 소소한 수리·수선 점검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운 대상자들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치처럼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많은 걸 발견했다.”며 “작지만 복지대상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복지기

동체가 적극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공동체는 단순점검 수리가 필요한 세대를 가정방문 상담등을 통해 3세대를 선정하였고 준비기간을 거쳐 3월 30일에 전체 복지대원들이 참여하여 우리동네맞춤 해결사 2018년 본격 출격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모 할머니는 “화장실에 좌변기 미설치와 침침한 전구로 생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나의 가려운 곳을 해결해주는 분들이 계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모·자녀 소통교육 진행 ‘호응’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활한 소통 방법 교육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양이)가 부모·자녀 소통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26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취약위גיע층의 초등학교생 부모와 자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모-자녀 소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고선옥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초보패서로의 의사소통 유형을 점검하고, 가족간의 원활한 소통 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최모씨는 “평소에 자녀와의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양이)가 부모, 자녀 소통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센터에서는 중위소득 72% 이하의 취약위גיע정(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회복과 정서·경제적

지원을 돕고자 지속적인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조모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자녀 소통 교육은 월1회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가족역량강화지원을 희망하는 가족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1-1037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공명선거 분위기 저해하는 음습한 정치행태 반대”

정호영 김제시장 예비후보



정호영 김제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11시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작금의 선거분위기를 보면 정책대결보다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등 그 양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며 시민을 혼란하게 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음습한 정치행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책과 비전, 공약과 인물로 정당하게 시민들에게 심판받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공명선거, 시민께 희망 주는 정책선거를 다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시민여러분의 과분한

사람으로 얻은 두 번의 시의원과 도의원의 경험,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노심초사했던 지역현안을 미래 김제비전으로 엮은 정책공약과 실천의지에 대한 진정성으로 당당히 심판받겠다며, 철저히 준비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예비후보는 열은 땅을 뚫고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의 복수초처럼 클린선거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이고 모여 고무한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거초반 대체를 형성했다고 자평하며 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하나 되는 김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흑색선전의 단초를 제공한, 대한민국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당사자를 정 후보의 법률자문단장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 방향 논의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에서는 지난 23일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강의실에서 2018년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운영위원들은 새일센터 담당으로 부터 2017년 새일센터 사업실적보고 및 2018년 구인구직 일치리 연계를 위한 사업설명 등을 앞으로 사업진행에 관한 제언, 새일센터 운영과 취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미란 센터장은 “자격증 취득과 취

업 등 다문화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여성새일센터는 무료 직업교육 훈련교육 과정인 코딩교육전문가 과정을 3월 26일 시작으로 4월 2일 오피스 회계사무원 과정, 5월 2일 식육미이스터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새일센터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 말까지 구인지원서비스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고산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완주군 고산향교(전교 심수철)가 지역유림, 주민,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26일 고산향교에 따르면 석전대제(釋奠大祭)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로서 ‘석전(釋奠)’이란 제(祭)를 놓고 폐(幣)를 올린다(奠)는 예식에서 유래된 의식이다.

이날 행사는 분향례,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중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고산향교는 태조7년(1397)에 창건되었으며, 정종2년(1399)에 소실돼 재건했다.

하지만 임진왜란때(1592) 왜구들에

의해 파괴됐다가 1601년에 대성전을 그리고 1604년에 명륜당을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건물은 대성전을 비롯한 명륜당, 동재, 서재, 내·외삼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행사가 열린 대성전은 1985년 8월 전라북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석전대제에 참석한 고재욱 완주군 부군수는 “급속한 현대화 속에 잊혀가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가 고산향교 춘기석전대제를 통해 계승·보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 온전히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